

# 아마존 전남관,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

## ‘한국식품 톱10’ 한식육수·꿀유자차 선정 휴대·편의성 등 효과적 마케팅 제품 인정

전남도가 운영하는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이 전남 식품의 미국 주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협)가 지난해 11월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통해 미국 온라인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농심, CJ제일제당 등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의 제품 틈바구니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농심의 ‘짜파구리 컵라면’,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죽 콤보’에 이어 3위를 차지한 ‘한식육수’는 신안새우젓(우)육수를 내는 천연조미료를 동전 모양으로 만들어 알약처럼 PTP에 포장함으로써 간편성을 높였다. 멸치, 새우젓, 다시마 등 전남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특별한 제조 방법으로 잔여물이 남지 않아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

10위에 오른 고흥 아리푸드의 ‘꿀유자차’는 전국에서 가장 맛과 향이 좋기로 유명한 고흥산 유자와 국내산 꿀을 사용한 제품이다. 유자에이드, 유자드레싱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용 티백에 개별 포장해 휴대성과 편의성으로 아마존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곽대호 아리푸드대표는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해외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했는데, 아마존 전남관을 통해 저비용으로 손쉽게 진출한 것은 물론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미국 아마존을 발판으로 전 세계인이 우리 제품을 쉽게 구매하도록 마케팅과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미 식품 수출은 전통적으로 한미마켓에 집중해 수출기업간 경쟁이 치열했으나, 아마존 전남관을 통한 온라인 수출은 교포시장을 넘어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미국인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현지 소비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제품 개발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해외 주류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 광주구청장협, 지방재정 현실화 건의 사회복지사업 보조율 20% 구간 신설 등 촉구

광주시 5개 구청장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확대에 뜻을 모았다.

20일 광주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에 대해 논의하고 ‘광역시 자치구 지방재정 현실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주민세(개인분) 구세 전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20% 구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2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 소비세를 확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매년 크게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와 행정 수요 등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차별받아왔던 지방정부에 대한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를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 보장과 지방재정 여건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준 기자

## 대신협, 내달 말 2차 여론조사 공동 보도

대전서 5차 사장단 회의  
정부 광고 집행기준 지적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앞서 진행한 1차 공동여론조사에 이어 내달 말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해 28개 회원사들이 공동 보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 지역 소멸과 지역대학 위기, 지역연관 발전 등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유력 대선 후보 공동 인터뷰를 실시해 동시에 보도하는 등 후보들의 지역정책을 다각적으로 검증해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대신협은 2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유성호텔에서 제5차 대신협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신협은 지난해 말 한국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정부 광고 집행기준과 관련, 표본 선정기준이나 가중치 부여 등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촉구했다.

또 제3회 자치분권대상 수상자 후보자로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선정해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신규 공동사업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장단이 2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유성호텔에서 제5차 대신협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으로 오는 10월 중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케이팜 귀농귀촌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신협 사장단 회의에는 대신협 회장인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을 비롯

해 신항철 경기일보 회장, 최윤재 경북매일신문 사장,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사장, 배재한 국제신문 사장,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김성의 남도일보 사장, 임한 전북도민일보 사장, 김

원식 중도일보 회장,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한인섭 중부매일신문 사장, 최윤정 중부일보 사장, 강태억 충북일보 사장, 성기선 충청투데이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 광주시, 2022년 연간 자체감사계획 발표

24개 사항 실시...특별감찰 강화

광주시는 2022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해 지난 19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청렴하고 안전한 광주실현”을 목표로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관운영 감사 ▲대형공사, 자전거도로 등 시민안전 분야에 대한 현장중심 특정 감사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성과감사 ▲컨설팅, 일상 감사를 활용한 사전 예방 중심 감사 등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시, 자치구, 공사·공단과

지방재정, 자전거도로, 대형공사, 사회복지시설 등 총 24개 감사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공직자의 정치 중립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감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올해는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과감히 개선하고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청렴하고 안전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 전남도, 신안에 레몬 특화 스마트팜 조성

### 농축산부 공모 선정 200억 투입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 조성’ 공모에서 신안군이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재배 작목을 레몬으로 선정,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저렴한 임대료로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 3년간 임대 후 평가 등을 거쳐 최대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현장평가와 서면심사를 거쳐 신안을 포함해 강원 양구, 경북 영천 등 전국 3개소를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남도는 신안 도초면 밭매리 일원 5.8ha 부지에 총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임대형스마트팜(4.2ha)과 지원센터, 선별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재배 작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레몬으로 선정, 수입대체 효과를 꾀한다. ‘아일랜드 스마트팜’도 구축해 체험 관광을 포함한 레몬을 활용한 ‘팜핑(Farm+Camping)’, ‘비치캠핑’ 등 첨단 스마트팜과 특화한 섬지역 6차산업도

벨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청년 인구 유입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처하고, 농업의 신성장 미래인력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은 청년이 농업·농촌으로 찾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팜 창업에 관심이 있으면 임대형스마트팜은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광주 기초의회 ‘MZ 세대’ 물러온다

▶1면에서 계속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에 가린 지선이란 평이 지배적인데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지도가 거의 없는 정치신인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 선거구 공천제도는 MZ세대의 지지 기반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기초의회는 경선과정에서 협의의원이거나 지역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가점을 부여받아도 기성 정치인에 비해 불리하다”며 “개정된 제도는 정치신인들에게 권리당원 확보, 금전적 부분 등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정치 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기성정치인과 공평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 청년 기성제를 도입했다”며 “청년의 정치적 인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불공평한 제도를 개선해 향후 청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대선 기여도를 공천심사에 반영한다고 한만큼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MZ 세대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 중인 노진성 공동선대본부장은 “정치권에서 젊은층의 활동의 폭이 점점 넓어짐에 따라 지속된 정책의 실패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청년들의 문제가 단순 일차적 부족과 복지혜택의 수혜자라는 사고를 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특별상속한정승인 공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년단482 특별상속한정승인 상속인: 임병술, 임성수, 임경연, 임성숙, 임경미 피상속인: 망 오교인 (30214-2-\*\*\*\*\*, 2016년 10월 21일 사망) 최후주소: 전남 무안군 봉탄면 봉산길 75-5

법정상속인 임병술, 임성수, 임경연, 임성숙, 임경미의 피상속인 망 오교인의 재산상속을 함께 있어 별지 상속 재산 목록을 첨부 하여서 한 2021년 12월 13일자 특별상속한정승인 신고가 2022년 1월 17일자로 수리 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재산자 및 유증을 받은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1일  
한정상속인: 임병술 (010-3618-2577)  
채권신고주소: 전남 무안군 봉탄면 봉산길 75-5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원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픈 상담▶

호남지사 010-2175-4731 /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골을 간질여도  
커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씌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